

요약

최근 보험계약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 구성으로 보험을 재조정하는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그러나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계약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리모델링으로 보험소비자 혜택이 향상되어 보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됨

○ 최근 다수의 방송사들이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보험상품 리모델링 프로그램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고, 중복보장 또는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면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변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임
- 공영방송인 EBS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사에서 보험상품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소득 대비 보험지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보험상품 리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한편, 보장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반해 물가상승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질병의 완치율 높아지면서 치료비보다는 치료 후 요양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 또한 보험상품 리모델링 니즈를 확대함

〈표 1〉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보험지출 증가율

(단위: %, 전년 동분기 대비)

구분	'20. 1/4	'20. 2/4	'20. 3/4	'20. 4/4
소득	3.7	4.8	1.6	1.8
보험지출	6.9	6.9	9	6.7

자료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일반적으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은 계약자의 현재 재무상태와 함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한 재무설계에 맞추어 이루어짐

-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계약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여러 보험상품들을 가입함

- 가까운 장래에 발생가능한 건강위험에 대비한 건강보험,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 그리고 생애기간에 걸쳐서 발생가능한 사망위험에 대비한 사망보험 등에 가입함
 - 그러나 계약자의 재무상태의 변화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장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고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계약자가 직면하는 위험도 변화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의 보장을 축소 또는 해지하고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보장의 비중을 축소하고 건강보장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으며, 최근 암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고가의 표적항암약물치료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존의 암보험을 해지하고 표적치료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
-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가 직면한 위험의 변화가 특정 위험의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시 특정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지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로 사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유족들에게 큰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예를 들면, 사망보험을 해지하고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후 2년 안에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리모델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음
 - 또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 증가 등으로 위험보장니즈가 감소할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가 바람직할 수 있음
 -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납입유예제도, 가입한 계약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출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보장 효율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감독당국은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에 충분한 설명과 필요 시 동일한 보장에 대한 다른 상품과의 비교설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해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는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계약자 리모델링 시 보험판매자는 신상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의 중요성을 언급할 인센티브가 적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가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적 부담만을 고려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사망보장보험의 해약과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 위주의 리모델링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경우, 소비자의 보험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